



김관영 도지사 시군방문(순창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순창군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와 폭설대비 지지대를 설치한 블루베리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사진=전북도>

도, 환경·산림 특례 본격 시행...탄소중립·생태힐링 '앞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추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에서 도민안전 확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확대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함께 이루는 탄소중립 실현, 생태힐링 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업무계획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성장과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환경·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3년간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해 전북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립·군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악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종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고 특색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4개 특례 지구·단지(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자연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례 지구·단지 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확대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만경강·백석제 국가생태탐방로를 비롯 남원 지리산 에코촌,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센터 등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속도를 내고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우수 생태자원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사업을 확대해 5천419동에 213억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 정비와 비상공급망 구축 등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에 총 1천81억원을 투입해 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보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각 시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제시는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농촌 유희 시설을 청년들의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정읍시는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인근 전주, 광주 등을 찾아가야 했던 서남권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취업-주거-돌봄'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올해 1천억대 기금으로 지방소멸 대응 총력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 총 64개 사업에 1천19억 투입
임신·출산, 일자리 창출, 교육·사회서비스 향상 '3대 전략' 집중
위케이션·공공산후조리원 등 후속 사업 지속 추진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총 1천19억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기금 14개 사업에는 193억원, 시군 기금 50개 사업에는 826억원이 지원된다. 대상 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인 익산 시이다.

올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3개 전략 14개 사업이다. 3대 전략 분야는 ▲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살고 싶은 전북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체류여건 조성으로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8800

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50건 등 처리

21일까지 11일간 의정활동…조례안 5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 안건 처리 예정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오늘 2025년 첫 회기인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120일)의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

한 시책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이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

진행 축구 결의안 ▲각계 대표성과 실적적 권한 보장된 2기 탄핵위 구성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도 방문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 각종 안건은

1차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제41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문승우 의장은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의 늪에 빠져 위축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며 “우리 40명의 도의원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순창 다섯째 아이 탄생 축하 도지사,순창찾아인사…구급대원들,신속 협력으로 순산도와

도내에서 올해 들어 첫 다섯 번째 다둥이 가정인 김관영 도지사 직접 산모를 만나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일 순창군 인계면 정모씨(여, 35세)가 119 순창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다섯 번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소식을 전해 듣고, 산모와 가족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큰 축복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왔다”며 “다섯 번째 아기를 비롯

해 오남매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앞으로도 내내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육아용품 지급, 첫만남이용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다.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시책 강화

도, 총 사업비 1천240억원 투입·5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지원

전북자치도가 도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8천989명이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1천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사

업’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993억을 지원,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1:1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이 배정된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181억원이 지원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아 돌봄비 치우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총 39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3

억이 지원되며 장애인들이 탈시설 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2천510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은 522명, 장애인돌봄비 치우개선 보수교육수당은 시간당 1만590원으로 대폭 확대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 도로관리사업소 방문 ‘소통하는 도정’ 실현

출범 1주년 맞아 직속기관·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 직원들 격려

김관영 도지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속기관·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0일 지난 달 동물위생시험소에 이어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 최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 겨울철 안전한 도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전북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 및 주요 도로의 유지·관리, 포장 보수, 위험도로 개선, 재해 예방사업, 교량 보수보강 등 전반적인 도로 인프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품질시험실 운영 등을 통해 도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업무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기간 야외 근무가 많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로관리사업소는

2036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1월11일 2025. 2. 10. 1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속기관·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도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행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문화예술 공연’ 작품 공모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 상상력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작품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과학미술, 버블, 샌드아트, 연주회,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교육적인 작품을 엄선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 18시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택배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므로, 공모 참여 단체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전북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문화예술 공연단체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과 정서 함양을 목표로 기획·제작된 작품이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은 공연 희망 작품에 대한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과 14개 시군 공연장에서 총 40회 상연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 전문감사인 운영’과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화 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도 이어졌다.

‘지방보조금 전문 감사인’ 제도는 도 차원에서 3억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감사인 후보군을 구성·운영하는 제도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한, ‘정보공시 의무화’ 제도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 관련 필수 정보를 등록·공개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보조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활속 화재 예방 주의

멀티탭 전원이 아닌 플러그 뽑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NO!

가스레인지 사용 시 조심 또 조심!

난방기기 옆 가연물은 치우기!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놓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주세요

사용 전엔 환기를, 사용 후에는 밸브까지 잠그는 습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난로 주변에 닿지 않도록 조심!

새만금 기업지원단 출범…기업 ‘밀착’ 지원 강화

새만금개발청, 기존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개편… 맞춤형 기업 지원 본격화

투자 유치부터 행정·인력·애로 해소까지 전방위 지원…고용특구 연계 인력 양성·대외 협업 확대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새만금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10일자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단의 출범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새만금청이 적극 행정 일환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의 다양한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을 보다 밀착 지원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대외적 협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소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작년에 구성된 새만금 인제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특구와 연계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개발전략구 내 자율기구로 설치해 기업 투자유치 업무와의

연계를 한층 강화했으며, 지원단장을 과장급(4급)으로 임명하고 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을 선발해 배치했다. 기업지원단은 기존 임시조직에서 독립된 별도 부서로 개편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새만금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지원단의 출범을 통해 기존의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정책 지원과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업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새만금이 기업 지원 특화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순창농협, 농협생명 월납보험료 1억 달성탑 수상

농협생명 연도대상 수상 후 2년만 패거…지속 성장세 성과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10일 전북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이 2025년 농협생명 보장성 월납보험료 1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농협은 조합원 복지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이다. 김성철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활발한 조합원 환원사업을 통해 2024년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영입 마케팅을 통한 이익의 성장세는 물론 조합원의 복지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광수 총국장은 “농협의 존재이유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인 만큼 전북 농축협을 찾는 조합원의 소독증대와 더불어 우리 농협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선거운동’ 위탁선거 첫 도입

후보자, 금고에 회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제공 원치 않는 회원은 13일까지 거부 의사 밝혀야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선거운동 목적의 회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운동원 지정 등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확대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선했던 선거운동 방법이다. 금고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금고에서 부담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정당한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가상번호 제공 규정이 있으나, 후보자의 선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회원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거운동을 위한 가상번호 제공을 범으로 장선거가 처음이다. 정해 시행한 것은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 후보자는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선거

운동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고 회원은 본인의 가상번호가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13일까지 해당 금고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련 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 접촉이 쉽지 않은 금고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돼 그 효과성에 기대가 크다”며 “후보자 판단과 선택에 있어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농촌진흥청, ‘농산물 자동감지 산소농도 제어’ 능동형 저장고 보급 현장 점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10일 능동형 CA저장고 적용 현황 살펴…“소비전력 줄이고 농산물 저장 기간 늘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란,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저장고이다. 이승돈 원장은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자 안내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외국 기술에 의존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장기저장기술인 시에이저장고를 국산화했으며,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호흡률(RQ, respiration quotient)을 측정·분석해 기체 환경 설정값을 스스로 자동제어하는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10일 APC를 찾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자동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제어 2세대 CA저장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호흡률 기반 능동제어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사과, 배추 등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장기저장기술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형 유통센터를 중심으

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외국의 시에이 저장 기술을 사용해 왔으나 높은 설치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국내산 농산물과의 물성, 생리 특성의 차이 등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2016년 기체 농도를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1세대 시에이저장고를 개발했다. 이후 농산물 생리 상태를 호흡률로 자동 감지해 기체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2세대 능동형 시에이저장고도 개발했다. 2세대 능동형 시에이저장고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소비전력은 60% 이상 절감했고, 사과(6개월→12개월), 만감류(1개월→3개월), 배추(월동 3개월→5개월, 봄 1.5개월→3개월) 등 농산물의 저장 기간은 최대 2배 연장할 수 있었다. /최준호 기자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아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40%) 폐업…‘27년까지 개식용종식 차질 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

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

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지역 주부들과 정월대보름맞이 오곡밥 나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 (사)농가주부모임전북도연합회(회장 김미자)와 함께 10일 농협전북본부 1층에서 정월대보름맞이 오곡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1천개의 오곡밥을 준비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로 회원들이 직접 오곡밥을 관내 시·군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사)농가주부모임전북도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농촌생 활개선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밀반찬 나눔봉사, 농촌일손돕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등 농촌 소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준호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앞두고 교육 현장 ‘혼란’

“진로 선택 폭 넓어져 좋지만, 설명 부족해 준비하기 어려워”·“진로·적성 따라 원하는 꿈 이룰 수 있는 교육 기반 조성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정적인 정책 정착을 위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선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다가오는 새 학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학부모 지원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 전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며 140개 강좌를 개설·운영해 1학기 28개교, 2학기 24개교 등 총 12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학교 중 12개교는 소규모학교로 전북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개설 여건 마련과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설명회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학생 대상 설명회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중심 설명회 등으로 지역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공간 조성 사업과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사업을 추진했다.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대도시 학교의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했지만 어려운 일”이라며 “온라인 학교를 쌍방향으로 하더라도 수업의 효과가 대면 수업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다가오는 새 학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학급 수가 많지 않지만 교사 수도 많지 않아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시행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참혹한 제도다”라며 “생계 위기

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유급하거나 최악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과목 선택이 다양해져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꿈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면 학교 차원에서 과목 선택이나 대입 등에 관련한 설명이 부족해 고등학교 입학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최성민 기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작품 13점 선정

도내 아동·청소년 73명 참여… 전북만의 독창적 올림픽 표현

전북자치도가 주최한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이 성료된 가운데 지난 7일 전문 심사를 통해 13점의 수상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짧은 공모 기간과 설 연휴, 방학 일정 속에서도 총 7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미술연합회,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문화·예술 기관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작품의 주제 표현력, 창의성, 이해도, 제작 의도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세대가 상상하는 올림픽의 모습이 다채롭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한옥 마을, 풍납문 등 전북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경기 장면과 역동적인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정석 유치 TF 본부장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그린 올림픽의 모습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희망적이다”며 “이들이 꿈꾸는 올림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 후보작 13점은 10일간의 공개 검증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되며, 수상작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가 발표되는 28일까지 도청 로비 및 홈페이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도교육청, 안전·건강한 급식으로 학생 건강 챙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건강한 급식지원, 즐거운 영양·식생활교육 지원’을 목표로 2025년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의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열고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 설명회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급식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급식운영으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먼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해

HACCP 시설기준 이상으로 식생활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저탄소 채식의 날 실천학교 운영, 우수레시피 개발·보급, 식품알레르기 대체식단 운영에 나선다.

‘행복한 영양·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급식 운영, 개인맞춤형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 학생승마체험 지원… 말 산업 대중화 견인

학생 승마체험 13억여원 지원…3천910명 기회 제공 · 전년도 대비 참여 인원 6백명 증가 · 참여 규모 확대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내 학생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12억7천만원을 투자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600명 증가한 3천910명의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을 제공하며 1인당 10회, 총 32만원 상당의 승마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게는 무료로 승마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승마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자존감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며 승마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체험비용에 보험료(2만원)가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승마체험을 희망하면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된 승마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학교, 신입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 ‘JBNU 열품캠프’ 마련

단순 오리엔테이션 넘어… 대학생할 주체적 설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예비 신입생들에게 계열별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공적 대학생활의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JBNU 열

품캠프’를 오늘부터 13일까지 JBNU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2025학년도 예비 신입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캠프에 참여하

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와 현장 스케치 영상을 제공한다.

JBNU 열품캠프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열정을 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및 진로탐색을 위한 계열별 맞춤형 프로그램, 초빙인사 및 선배 멘

토 특강,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캠프이다. 이 캠프는 2박 3일 동안 JBNU 컨벤션센터 생활관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지원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자체감사 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는 감사주기(3년) 및 기관(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총 53개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학교자율형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민원감사, 사이버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감사를 한다. 특히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현장 지원 중심의 사전예방감사 ▲선택과 집중의 내부통제 감사 ▲

적극행정 중심의 미래지향 감사에 중점을 뒀다.

공직자 청렴 의식은 높이고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며,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이버 감사 및 내부통제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감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위반 사항이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한랭 질환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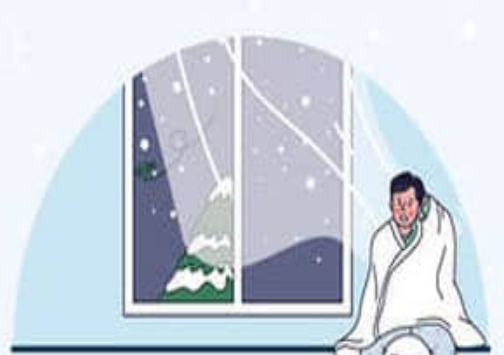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 모자, 마스크 등)입기, 무리한 운동 하지 않기

정읍시, ‘착한 선결제’ 운동 전개… 소상공인 지원

정읍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이달 한 달간 공공부문의 선결제를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착한 선결제는 고객이 미리 결제한 후 추후 방문해 소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시는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30%를 지역 내 식당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선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주요 기관과 단체에도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선결제는 ‘개산급 지급 제도’를 활용해 집행 목적·장소·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선결제를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해 구매 기간을 단축하고, 소상공인 업체에 재방문을 약속해 매출 증대를 돕는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시

저소득층 임산부·아동 가구 대상… 월 10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 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어진다.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해당 가구에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주거 지원 정책, 청년 정착 이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600여 명 혜택 제공·250명 익산 전입 성과

익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세대원 포함 약 1,6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250명이 익산으로 전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현재까지 4달여 만에 누적 4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 중 20%는 다른 지역에

서 익산으로 전입한 가구이며, 신축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는 90% 이상이다. 또한 수혜자 중 70%는 기존자로 가정형성과 출산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지역 내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 상황을 활용해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과감하게 시행한 결과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디딤돌 대출, 보증자리 론(Loan) 등 정부 저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의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청년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

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청년층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중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집중됐으며, 미혼 청년층 비율은 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택 구입 수혜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익산시가 청년들의 결혼 유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인구정책에서 뜻 깊은 성과를 도출한 만큼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5,0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만큼 사업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5 긴급복지 지원 강화…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 기준 완화·생계지원금 인상… ‘위기가구 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정읍시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복

지지원단 콜센터(538-0129)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펜싱 동계 전지훈련 여정 마무리 첫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2억 3,100만 경제적 효과 발생

시는 2022년부터 4년째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대한펜싱협회가 주관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4일간 실내체육관과 바다비체육센터에서 진행됐다.

특히 국가대표 후보선수 48명뿐만 아니라 호원대·경남대·호남대

펜싱팀과 중국 산둥성 펜싱팀 등 국내외 선수들이 방문해 명품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으며, 선수단 총 150여 명이 참여해 2억 3,1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원활한 전지훈련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익산=최준호 기자

위기를 기회로, 2024 정읍 의정보고회 성료

윤준병 의원, 22대 국회 첫 의정활동 보고… ‘정치가 희망이 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8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위기를 기회로, 2024 정읍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금번 의정보고회는 엄중했던 국정 상황과 지역 현안을 짚막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치가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의정보고회의 내용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임해은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계엄 사태·탄핵 정국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입법·정책 활동 성과, 정읍 주요 현안사업, 민원해결·예산확보 내역과 22대 국회에서 정읍의 변화를 위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한정사상 조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사태’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과정 속에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 내용, 윤준병 의원의 소회 등을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83건의 민생법안을 소개하며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읍의 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프로젝트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행 프로젝트 등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지역발전 구상과 정읍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 구역 확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난상토론식 간부회의 도입… 소통 강화

군산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도입한다.

이번 회의 방식의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간부회의는 주요 현안을 ‘금주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요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토론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통해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

길고양이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읍시가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81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지역 내 4개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길고양이의 번식을 억제해 무분별한 개체 증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시민은 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63-539-640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포획팀이 현장을 방문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협약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1960년생 대상 폐렴백신 무료 접종 시작

익산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이며, 1960년 1~12월 출생자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13가’를 접종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1회 재접종이 필요하다. 23가는 국내 폐렴구균 백신 중 가장 넓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어 폐렴구균의 예방방위를 넓혀 줄 수 있다. 접종 방법은 13가 폐렴 접종 후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23가를 추가 접종하면 된다.

백신 접종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91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접종대상 여부 확인, 위탁의료기관 안내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063-859-483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의회 “완·전 통합 갈등 종식돼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방문단과 현장간담회…통합반대 의견 전달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바탕으로 행안부에 여론 권고안 제출 예정

“주민 갈등 부추기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1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의회를 방문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서남용 통합반대특별위원장, 이주갑, 김규성, 성중기 의원 등이 의회대표로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방문단은 완주군의회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의회의 입장을 청취한 후,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의 완주군 방문은 행정통합 찬성측이 통합 서명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한건의서를 접수한 지 200여 일 만에 이루어진 첫 공식 방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찬·반 여론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완주군의회 대표단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당위성 부족과 그 동안의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완주군의회는 1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방문단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으로 행정통합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완주군민의 통합반대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용 반대특별위원장은 “현재의 통합논의는 민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처음 시작은 김관영 도지사과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주시역의 정치권에서 발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전주시와 전북도 측의 일방적인 통합추진과 일부 찬성단체들의 선심성 발언 등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허언”이라고 강조했다.

유익식 의장은 “지금까지 약 27년 동안 3차례의 통합추진으로 피해를 본 건 완주군민들이고 찬성 측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비난하고, “만약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모든 직을 내려놓고, 불출마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통합 반대 캠페인 및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7월 1차 반대 서명부(3만7,785명)에 이어 10월 2차 반대 서명부(1,361명)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 선정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진행…협업 능력·창의성 배양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KYWA형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 공모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KYWA형 PBL사업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활동 과정에서 청소년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한 청소년활동 모델이다. 완주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제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창작 활동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결과물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감소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 내 환경 보호 실천 방안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44일간의 여정 성료

남원시 운봉애향회(회장 신동열)가 주관한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남원 허브밸리 및 바래봉 일원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해 9일 44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지난달 4일 개장식에서 테이프 커팅과 눈썰매 시승을 하며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 주요 내빈, 관광객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며 성황리에 마친 후 바래봉 등산객을 포함해 총 50,0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 설 연휴로 이어진 지난달 26일에는 약 2,100명인 최대 내방객이 방문해 전국에서 찾아주는 호남 유일의 겨울 축제로 거듭났다.

이번 눈꽃축제는 애향회와 지역주민,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하나 돼 번듯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처해 인공눈 만들기, 행사장 주변 도로변 제설작업, 야간 눈썰매장 보수 등 지역민간단체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명소로서 남원을 널리 알릴 생활관계인구 증대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고 추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민 자발 참여 결성 지역자율방재단, 제설 ‘명활약’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자율방재단)이 제설작업에 큰 활약을 보이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설 연휴를 비롯해 지난 6일에 내린 폭설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우려됐다.

이에 자율방재단은 13개 읍면에서 자체 제설팀을 구성해 구간별로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총 100여 명을 투입해 골목길, 학교 주변 등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방재단은 제설 작업 외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처를 강화해 향후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추가 제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을 2025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협회, 평화의집, 편한 세상 등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참여해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구강보건 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틀니 관리 요령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시설별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편한 세상은 매월 1회, 평화의집은 2개월에 1회 방문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적장애인협회는 2개월에 1회 보건소에 내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063-620-7975~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제21기 입사생 수료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7일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 주관으로 옥천인재숙 제21기 입사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료하는 36명의 학생 중 22명이 지역 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며, 주요 진학 대학과 학과로는 ▲의대·치대·수의예과 3명 ▲수도권 주요 대학 5명(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경희대, 숭실대) ▲지방 국립대 13명(전북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해군사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캠페인으로 금연아파트 갈등 해소 나선다

완주군이 이달 중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관내 금연아파트는 봉동 광신프로 그레스, 혁신 에코르 3단지, 완주 푸르시오 더 퍼스트, 완주 모아미레도 센트럴시티 3차 및 1차 아파트로 총 5개소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장류문화알리기·관광객 유치 지원 본격 ‘시동’

순창군은 지난 7일 2025년 (사)한국대표여행사 연합 총회에 참석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순창군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유서 깊은 장류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뤄졌다.

이날 순창군 신인수 문화관광과장과 선운숙 발효관광재단 대표를 주축으로 한 8인의 방문단은 다각도의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주요 여행사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순창군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도로 2개 노선, 제6차 건설계획 예타 대상 선정

인월-산내 국지도60호선·순창 적성-주생 국도24호선…’26년 상반기 최종 고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남원시 도로 2개 노선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사업은 남원시 인월면과 산내면을 잇는 국지도60호선 2차로 개량사업(L=8.4km, 595억원)과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 2차로 개량사업(L=9.2km, 532억원)이다.

이 중 인월-산내 국지도60호선은 지리산권으로 가는 진출입 노선이자 경상남도와의 연결도로로 계절별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로이다. 시설개량을 통해 인근 주민은 물론 동부 산악권 방문객에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편안하고 안전한 지리산권 관광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담양~순창~남원이 연결되는 순창 적성~남원 주생 국도24호선은 광역 관광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남원시장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예타대상 선정에 힘을 실었다.

향후 남원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평가용역’을 추진해 예비타당성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6차 계획에 우리시 사업이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고, 중앙부처, 국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투자 우선순위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6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관영 도지사 순창 방문…폭설 현장 등 찾아 애로 청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형화된 도민과의 대화의 틀을 벗어나 10일 도내 최고 55cm의 폭설이 내린 순창군의 폭설 현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다.

순창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최근 도내 최고 55cm의 폭설이 내린 북흥면을 찾아 주민안전대책, 제설대책, 어르신들 안부확인 등을 살피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북흥면 제설장고를 방문해서는 순창군의 겨울철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받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설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건립된 이곳 제설창고는 김지사의 특별한 배려로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군비포함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한 순창군민들의 안전



에 특목히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방문한 폭설현장에서 하우스 농가를 방문한 김 지사는 순창군이 지난 2023년부터 하우스마다 지주대를 설치해 폭설피해를 예방한 결과 올해 같은 반박된 폭설에 별다른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직접 보고 들

으며 사전예방과 전략적 대비가 얼마나 이번 폭설과 같은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지 피부로 느끼는 기회가 됐다.

북흥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군정 업무보고가 이어져 순창군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 식품접근성 강화

완주군이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 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로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씩으로 가

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바우처는 국산 채소·과일·육류·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하나로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주민

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자격을 검증한 후 지원 대상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확정하고,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토리에듀핀, 대한적십자사 웃음이 바른 기업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토리에듀핀(대표 김도형)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웃음이 바른 기업’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토리에듀핀은 핀테크기업으로 금융 교육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도형 대표는 “학생이였을 적 RCY활동을 통해 많은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더 적십자사가 친숙하다”고 말했다.

이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돼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웃음이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도내 위기가정 생계, 의료, 교육 지원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최준호 기자



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 장수읍에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장수읍은 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회장 윤금옥)가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부인회는 여성의 자부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해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장수군지회는 지역 내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 등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윤금옥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부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주영 읍장은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KCC, 완주군에 성금 4천만 원 기부

지난 해 5천만원 기탁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어 올해도...따뜻한 나눔 실천

(주)KCC(대표이사 정몽진)가 완주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000만 원을 기부했다.

10일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문병원 (주)KCC 전주공장장을 비롯해 김대원 관리수석, 김우중 서무팀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양효경 모금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주)KCC는 건축자재, 도로 및 실리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으로 건축산업자재의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산업문화의 발전을



(주)KCC가 완주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000만원을 기부했다.

선도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이웃돕기 성금

/완주=김명곤 기자

5,000만 원을 기탁하고, 관내 저소득층 6세대에 ‘숲으로 따뜻한 집만들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문병원 (주)KCC 전주공장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KCC의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익산시 어양동, ‘이웃愛 돌봄단’ 활동 돌입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예방 위해 출범...1년 간 돌봄 필요 16가정 방문 예정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미덕, 김중옥)는 10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에(愛)돌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어양동 이웃에(愛)돌봄단은 복지팀장 8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 돌봄이 필요한 16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안부 확인, 행정복지센터 연계, 위기 상황 대응 등 돌봄 취약 계층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원활한 돌봄 활동을 위한 안전 교육, 상담기법, 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서미덕 어양동장은 “갈수록 독거노인 가구뿐만 아니라 독거청장년 가구도 급증해 돌봄 공백과 고독사가 사회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는 큰 힘을 발휘하는 만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노암동, 발전·안녕 기원

남원시 노암동(동장 차미화)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2025년 을사년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다.

노암동 농악단(단장 이영민)과 노암동주민자치발전협의회(회장 박일곤)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해, 관내 사업체, 마을회관, 가정 등

100여 곳을 돌며 노암동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박일곤 주민자치발전협의회장은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하는 이틀동안 곳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농악단과 동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노암동민들의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개최

무운·풍년 기원 전통 세시 풍속

완주군 경천면 농악단이 10일, 경천면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지신을 달래고 악귀와 잡신을 물리쳐 한 해의 무운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이다.

경천면 농악단은 주민들의 안녕과

2008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며 경천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마을경로당과 기관을 돌며 신명 나는 풍물 공연을 펼쳤다.

이승희 경천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농악단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을사년 한 해 동안 경천면민이 무사무탈하고 만사형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국제와이즈맨 정읍샘골클럽, 2백만원 상당 이불 지원

정읍시 영원면의 이번 겨울은 따뜻함으로 가득하다. 국제와이즈맨 정읍샘골클럽(회장 고관민)은 지난 6일 200만원 상당의 이불 34채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샘골클럽은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겨울 추위를 녹일 이불을 전달했다.

이불을 준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한 고관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이불 전달식에 함께한 김규삼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람 나눔을 실천한 정읍샘골클럽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먼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무장면 건설기계협회 애환회·자율방범대, 제설 봉사

고창군 무장면 건설기계협회(회장 이영철), 애환회(회장 김남호), 자율방범대(대장 김성기)가 무장면 소재지 일원 제설 봉사로 만민 안전에 큰 도움을 줬다.

제설 봉사에는 회원 35명이 참여하고, 장비 12대(굴삭기 6, 덤프트럭 6)가 동원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여자경로당을 비롯해 골목 어귀의 눈 치우기 작업을 병행하는 등 세심한 자원봉사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영철 무장면 건설기계협회장은 “면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원들이 제설 작업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1백만원 전달

익산시는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대표 이도현)'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전달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작은소리와 동작'은 1995년 창단된 향토극단으로 연극을 통해 익산시 문화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이웃집 쌀통, 할머니의 레시피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바 있다. 또한 무왕의 꿈을 무대에 올려 한(韓)문화발상지 익산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도현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작은소리와 동작에 감사하다”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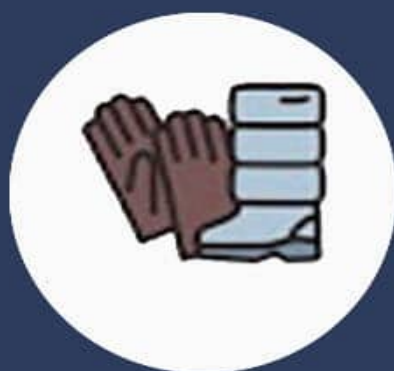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기상청, 날씨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체온유지, 보호 한다



보온덮개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다



따뜻한물을
충분히 마신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한다

〈一事一言〉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2)

유시민
작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윤석열이 옥중에서 업무를 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2말 3초'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다른 죄목으로 그를 추가 기소한다.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 최소형량이다. 후임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사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죽은 뒤에야 교도소를 나올 것이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저널리스트'들은 자기네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저널리즘 윤리를 지킨다고 말한다. 착각 아니면 거짓말이다. 양상훈은 어느 쪽일까? 거짓말이라고 본다. 양상훈은 이재명을 없애버리고 싶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고 검찰을 동원해서 벌였던 모든 공작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

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양상훈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하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고 중도층을 협박한다. 중도층이 지지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본선에서 질 것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를 겁준다. 김진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윤석열도 중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이라는 보호막을 쓰고 활동하는 양상훈은 이재명을 죽이는 데 실패해도 벌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민주당 '비명계'의 궤기를 선통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면 최선이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2022년 3월 대선 때처럼 이재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효과만 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총선에서 민주당 당원과 유권자들이 이낙연을 비롯한 '반명' 정치인들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가차 없이 내친 것은 그들이 양상훈 같은 언론인들이 퍼뜨린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민주당의 대표였다. 지금도 당원 대다수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그를 대선후보로 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중도층에서도 국힘당의 모든 정치인을 압도한다. 이재명은 시장·도지사·당대표로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는 민심의 흐름을 올라탔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끝내라는 대중의 요구,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라는 시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역이 아니다. 민주당 정치인 누구든 도전할 권리가 있다. 도전자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나쁠 게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서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보다 더 치열하게 내란세력과 싸워야, 이재명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의 '비명' '반명' 정치인들은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웠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책임을 몰아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했다. 비명은 때로 힘든 일이다. 개인

적으로는 공적으로든, 인연으로 치면 이재명보다는 김부겸·김두관·김경수·임종석이 더 오래되었다. 나는 인생의 어느 한 구비를 그들 중 누군가와 함께 헤쳐나왔다. 이재명과는 그런 인연이 없다. 김부겸·김두관·김경수·임종석의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 단언하려니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속에 있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예측을 분명하게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벚꽃대선이든 장미대선이든 조기대선이 열린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재판의 진도가 어떠한든,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한 이재명은 출마할 권리가 있다.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선거권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하는 데 가장 크게 활약할 정치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양상훈 칼럼과 같은 정치 독극물에 중독되어 내란세력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정치인은 기회가 없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주시 청년주거정책, '로또' 되어선 안돼

전주시가 발표한 '청년만원주택' 사업은 한 달 임대료 1만~3만원, 보증금 50만원이라는 과격적인 조건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전주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로또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문제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총 21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 청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도 많은 청년이 높은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210호의 물량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일부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로또식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신축·리모델링할 계획이지만 월세 1만~3만원만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2028년 이후에는 결국 전주시 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과연 전주시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입주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한 번 입주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한 최대 10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초기 입주한 일부 청년이 장기 거주하면서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소수만 초저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여전히 높은 월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일부 청년에게 초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현실적인 월세 수준으로 공급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임주가 순환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접근이 없다면 청년만원주택은 결국 극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청년 주거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권이다. 주거를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일부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청년은 여전히 높은 월세 부담 속에 힘겹게 살아야 한다. 전주시는 특정 당첨자를 위한 단기적인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 주거정책이다. 청년 주거를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재열전



무송리 석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불교조각, 석조, 불상
-지정일- 2002년 11월 15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산2번지

▲오늘의시

가난한 사랑의 노래 /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시인 약력 : 1936년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달빛', '갈대', '석상' 등의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시를 발표해 등단했다. 이후 '원격지', '산울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전북타임스!

기사제보 282-9600 광고문의282-9601 신문구독 283-8800 전북타임스신문

정읍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 나간다



의료돌봄·통합지원 관련 기관 교육



서남권 추모공원 제2분안시설 준공식



노인일자리 사업



생고을게이트볼장 준공식



- ◆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전방위 노인복지 정책' 강화
- ◆ 2025년 노인복지 예산 1,694억 원 · 투입 작년 대비4.1% 증액
- ◆ 기초연금 인상 · 노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의료돌봄 제공
- ◆ 경로당·게이트볼장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 선진 장례문화 구축

정읍시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지난해 대비 4.1% 늘어난 1694억원으로 증액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종합적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정읍시 노인 인구는 3만 26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노인 돌봄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 의료지원 확대 ▲여가·복지시설 확충 ▲선진 장례문화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정읍시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기초연금을 2.3% 인상했다. 이에 따

라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36만 48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13만원에서 228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에서 364만 8000원으로 조정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9%로, 매달 2만 6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총 929억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시는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해 3400명이었던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3600명으로 증가했으며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방문해 안부 확인,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후원 물품을 연계해 보다 세

심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해 1400대였던 응급 장비가 올해는 1500대로 늘어나며 다섯 종의 응급 장비를 통해 119 응급센터와 실시간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한 사회 참여 지원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6837명으로 지난해보다 320명 증가했으며 예산도 31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 보전을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고령 어르

신들을 위한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등이 중점 추진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평생의 보금자리'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읍시는 '2025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문요양,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형태다. 시는 2억 3100만원을 투입해 200명의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읍·면·동과 건강보험공단, 돌봄 수행기관 등이 협업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도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1인당 연 6만원을 지원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4곳을 포함해 총 11개소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도시락·밀반찬 배달 사업도 확대 운영된다.

▶ 경로당 자원 확대·노인복지시설 확충

정읍시는 현재 운영 중인 730개 경로당(등록 713개, 미등록 17개)에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며 올해는 14억 90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환경 개선 및 기능 보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비 지원이 부족했던 미등록 경로당 17개소에도 여름철 냉방비(33만원), 겨울철 난방비(200만원)를 추가 지원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공된 생고을게이트볼장을 본격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시는 8억원을 들여 북부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증축하고 14억원을 투입해 시립 요양원의 가족 휴게실 및 입소자 생활실을 증축한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선진 장례문화 선도

정읍시는 13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3년 10월 제2분안시설을 준공하며

서남권(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의 장례 인프라를 강화했다.

추모공원은 ▲광역공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 종합 장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 개원 이후 4만 5000여 건의 화장이 이루어졌다. 최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는 화장장 운영 회차를 추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정읍"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읍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증대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경로당 지원 강화 ▲선진 장례문화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 강천산 오토캠핑장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고
		평일		(5월~10월)	
오토캠핑장	1면 / 1일	20,000원	25,000원	30,000원	
부대시설	전기시설	2,000원/1일			
	주차장	무료			오토캠핑장 이용객만 사용가능
	샤워장	무료			

○ 사이트 크기 : 파쇄석(7m×10m, 8면), 목재데크(4.5m×5.5m, 13면)

○ 예약방법 : 강천산 홈페이지(<https://gangcheonsan.kr/>)

○ 문의사항 : 063-650-5540(강천산군립공원)

※ 캠핑장 이용 시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무료(4인 기준)

※ 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 등 이용 불가. 텐트만 가능합니다.